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스트리트 댄스’로 만난다

10-11일 ACC 아시아문화광장 ‘스.온.스@프린지’ 개최 일반부·청소년부 등 35팀 365명...일본·태국 등도 참가

2023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세계 수준의 스트리트 댄스와 함께 새롭게 시민을 찾아가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며, 동신대학교가 협력하는 2023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스.온.스@프린지(스온스엡프린지)’가 오는 10-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시아문화광장에서 펼쳐진다. ‘스.온.스@프린지’는 ‘스트리트 댄스

온 스테이지 앳(at)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줄임말로 스트리트 댄스와 스트리트 문화를 결합해 야심차게 준비한 축제다. 이날 행사는 국내·외 스트리트 댄스 퍼포먼스 팀의 경연과 함께 다양한 거리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래피티(낙서그림) 전시, 체험·마켓부스 등으로 채워진다. 스트리트 댄스 퍼포먼스 경연은 사전

예선을 거친 일반부 15개 팀, 청소년부 20개 팀 등 총 35개 팀의 본선 무대로 10일 오후 6시30분 막을 올린다. 일본·태국 등 다수의 해외 참가자를 포함 약 365명이 출전, 힙합·팝핑·악강·락킹 등 다양한 스트리트 댄스 장르로 이뤄진 열정 가득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 경연을 거쳐 11일 오후 6시30분 결선무대가 치러진다. 심사위원 구성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일본 오사카의 대표 힙합 거장 요코이(YOKOI)와 스트리트계 전설 요시에(YOSHIE), ‘스맨파’로 잘 알려진 백구영과 우태를 비롯해 팝핑댄서 호진, 안무가 해니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특별한 쇼케이스도 열린다. 지난해 대한민국에 댄스 열풍을 불러일으킨 Mnet ‘스트리트 댄 파이터’에 출연한 ‘엠비셔스’(MBITIOUS)와 ‘와이즈엑스’(YG X)’가 11일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지역 최초로 엠비셔스 7인의 완전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스트리트 컬처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아시아문화전당 플라자브릿지 일대에서는 플라마켓과 체험 행사를 만날 수 있고, 그래피티(낙서그림) 전시도 아시아문화광장에서 함께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기업의 협찬도 이뤄진다. 레드불코리아는 10일 참가자

와 관람객들에게 에너지 음료 ‘레드불’을 무료 증정하고, 레드불 미니쿠퍼 자동차를 설치해 이색 볼거리를 제공한 다. DJ이벤트(DJ) 장비 브랜드 ‘테크닉스(Technics)’는 이번 경연 참가자를 위한 티셔츠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스.온.스@프린지’는 ‘광주 스트리트컬처페스타’와 연계해 진행한다. 전국 규모의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 ‘메탈 라인업’을 확장시킨 축제로 9-11일 3일간 ACC 예술극장 등 일원에서 열린다.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스트리트댄스로 새롭게 선보이는 프

린지페스티벌을 통해 많은 시민과 젊은 이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 열정 가득하고 흥이 넘치는 축제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프린지페스티벌은 광주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청년 대표 거리예술인 ‘스트리트댄스’를 주제로 했다”며 “스.온.스@프린지’를 통해 광주가 세계를 대표하는 스트리트댄스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박선경기자



“재활용으로 지구 환경 지켜요” 지난 5일 광주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재활용 체계구축 및 분리배출 문화 확산 등 기후환경 극복을 위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종이팩 재활용 생활화와 전용 수거차량 확보를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신재생에너지 기반 인구소멸 대응 모색

도, 전국 첫 ‘햇빛연금’ 신안 안좌서 수산업 공존 간담회

전남도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안정적 조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 및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주민 이익 공유 증대 등 수산업 공존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 ‘햇빛연금’을 시행한 이후 인구가 늘고 있는 신안 안좌면을 방문, 주민과 안좌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주민 이익 공유 증대와 수산업 공존방안 마련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이해 증진,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통한 인구소멸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안좌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선 ‘햇빛과 바람을 이야기해요’를 주제로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인

구소멸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또 신안군 대표 어민단체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어업인 입장에서 바라본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신안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나 안좌면 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2천988명에서 2023년 4월 기준 3천172명으로 6.2%(148명) 늘었다. 안좌면은 태양광 발전 312MW 개발에 따른 이익공유제인 햇빛연금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매 분기 1인당 최고 5만원을 받는 지역으로 전남도는 안좌면의 이례적 인구 증가에는 햇빛연금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어민단

체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4월엔 신안군, 신안군어업인연합회,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협약체, 신안부유식종류산업협회가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통해 어민과 공존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전남도는 개별 어민단체와도 발로 뛰는 현장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100(RE100) 기업 유치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인구소멸·고령화 시대에 정부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며 “기존 재원의 효율적 투입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재정 투입 없이 고군분투하는 인구소멸 대응 시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 청년농업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도농기원, 농식품 판매 확대 기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6일 “도내 농식품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교육 진행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방송 운영 지원 등이며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전남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인 남도장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리얼커머스에서 수행한다. 전남도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고, 수송 및 물류 인프라의 한계가 있어 주요 소비처인 수도권 시장 접근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효과적인 전략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청년농업인이 직접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온라인상에서 농식품

의 직거래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동영상 촬영을 통해 도내 농장을 소개하고 쇼호스트와 청년농업인이 출연하는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내 농식품의 실질적인 구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홍재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청년농업인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유통트렌드를 반영, 저비용 고효율의 유통 플랫폼인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로 수도권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소방본부, 택시 2천520대 차량용 소화기 보급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6일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차량 화재 때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광주지역 등록 택시 2천52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4년 12월1일부터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 광주소방본부는 등록 택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신청·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 2천520대(법인 1천40대, 개인 1천480대)를 선정했다. 이들 택시에는 차량용 소화기(1.5kg·분말약제) 1개와 홍보스티커 2개가 각각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택시 이용객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사항을 홍보하고 차량 화재 때 초기 대응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 사업으로 택시 안에 작은 119가 마련된다”며 “차량 화재 때 차량용 소화기를 신속히 사용하고, 자율 설치로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아마가세 / 후쿠오카 / 기타큐슈 / 삿푸

일본 규슈 골프여행 2박 3일(54H)

8명 이상 출발 가능 | 항공은 에어부산 OR 진에어(부산/인천 출발)

899,000원 부터~ (기사&가이드 팀 4만원 별도)

무인 출발은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 양국 정부 인허가 조건 ※ 운항스케줄은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가격이 다르오니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대표 이사 **최수환**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2억원 기획여행보증보험 가입 / 제 100-000-2023 0227 3586호

◆ 공동조건: 여행경비는 1인 기준, 1억원 여행자보험가입, 골프54H, 전 일정 식사 비용(중식 제외), 숙박비 ◆ 최소출발인원: 8명 ◆ 사용골프장: 삿푸노리 G.C., 아마가세 C.C.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불포함 사항: 국내수송, 기사 가이드팀별도, 락커비, 클럽중식비, 여권, 개인경비, 골프캐디 ◆ 상의요금은 날짜 및 인원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사용호텔: 아마가세 유리 료칸(天瀬瀨里旅館) TeL.1522-1901

조이투어